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36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29)	봉헌 (210)	성체 (175)	파견 (283)
---------	---------	----------	----------	----------

미사 전례 예절

- 세례 성사를 받은 신자가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깨끗해야 합니다.

만일 대죄(큰죄 - 주일과 의무 대축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와 십계명과 교회법을 어긴 경우)가 있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영성체 전에 반드시 먼저 고해성사를 통해 사제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데 고해 성사를 안하고 영성체 하는 것 또한 성체께 대한 모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데 미처 고해 성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영성체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소죄(일상적인 죄)는 미사 시작 전례에서 <고백의 기도>를 바치고 사제의 사죄경으로 죄를 용서 받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안 해도 됩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9/2	이 그레이스	이 요한/황 스텔라	박 다니엘/황 스테파노
9/9	이 마틸다	이 바오로/황 스텔라	박 다니엘/황 스테파노
9/16	이 그레이스	이 요한/황 스텔라	박 다니엘/황 스테파노
9/23	이 마틸다	이 바오로/황 스텔라	박 다니엘/황 스테파노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80	\$95	\$1,58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8/4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9/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8/11	김 마론/ 김 헬레나	9/15	박 벨라델타/ 정 루시아
8/18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9/22	이 요한/ 이 마틸다
8/25	황 가롤로/	9/29	유 요한/ 유 마리아
9/1	손 아놀드/ 손 쟈마	10/6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10 월 4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 시

이번 임원회의는 오늘(9 월 9 일)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친교실 에서 모임

그 동안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해주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는 넷째 주일(9 월 23 일)부터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9 월 16 일 미사 후 친교실 에서 소 공동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곳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담담한 천사들

-성기영 아가씨 | 작가, 작곡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느 스토거(Marianne Stöger, 1934~)와 마가렛 피사렉(Margaritha Pissarek 1935~)은 1960년대 초반 한국땅을 밟은 뒤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우들과 동고 동락했습니다. 두 간호사는 2005년 은퇴할 때가 되자, 소록도 식구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작가로서 두 분의 삶에 관한 이야기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쓰는 동안, 저는 수차례 소록도를 방문해 취재를 했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일생 동안 온전히 무소유를 실천하며 환우들을 돌보는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분을 천사, 혹은 성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두 분은 칭찬을 몹시 불편해하십니다. "우린 그저 간호사로서 할 일을 즐겁게 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행복했어요. 왜들 그렇게 치켜세우는지..." 참으로 겸손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두 분의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은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대단히 훌륭한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성녀'처럼 위대한 일을 했다고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리안느와 마가렛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젊은이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더 가난한 나라로 봉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한 친지는 "간호사 일이 적성에 맞았고, 그 분야에 있어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기에 두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하더군요.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객관적이며 담담한 그분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

습니다.

어쩌면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성녀가 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10대 중반 이른 나이부터 병원 실습을 시작한 두 간호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문적인 간호 업무를 익혔고, 직업 전선의 최전방에서 활약했습니다. 훌륭한 간호사는 가장 어려운 처지의 환자들 곁에 있기를 원하겠지요. 간호 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던 소록도로 그분들이 오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분들은 이상적인 간호사의 모습을 온몸으로 실현해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하느님께로 향하는 깊은 신앙을 빼놓고서 이분들의 행적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직업과 신앙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진심으로 영혼 끝까지 정성을 다한다면,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우리 삶 안에서 열릴 수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서울주보 에서-

교리상식 급히 병자성사를 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 원목실이 있는지 알아보고 없다면 관할 본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본당 신부에게 알리고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본당 신부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당의 사목활동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당 신부에게 병자성사를 받아야 돌아가신 다음에도 냉담 중이던 가족이 다시 본당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정이 매우 급박해서 본당 신부가 아닌 분에게 병자성사를 받았다 해도 일단은 본당에 알리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병자가 돌아가시게 되어도 관할 본당의 후속적인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